

태풍 오기 전,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

예보 확인 → 현장 정리 → 작업중지·대피 → 재개 전 점검

태풍·집중호우 현장 안전점검

1 예보·특보

- 기상청 단기예보·태풍 경로·기상특보를 확인합니다.
- 작업중지 결정권자, 비상연락망과 대피장소를 다시 확인합니다.

2 비산·전도

- 지붕재·시트·간판·적재물은 고정하고, 고정하기 어려우면 실내로 옮깁니다.
- 비계·가설울타리·크레인·고소장비의 전도 위험을 확인합니다.

3 침수·감전

- 배수로·집수정의 막힘을 없애고 양수가·비상전원을 준비합니다.
- 침수 예상 전기설비는 전원을 차단하고 접근금지 구역을 표시합니다.

4 작업중지·대피

- 강풍·호우로 시야, 발판 또는 화물 통제가 어렵다면 즉시 작업을 멈춥니다.
- 태풍이 지난 뒤에도 지반·구조·전기 점검을 마치고 전에는 재개하지 않습니다.

가장 중요한 한 가지

특보가 해제돼도 바로 올라가지 마세요. 파손된 지붕·비계·전기설비는 접근을 막고, 점검 결과를 확인한 뒤 작업을 재개합니다.